

‘경쟁’보다 ‘화합·안전’ 두 바퀴에 신고 달렸다

동호인 등 500여명 45km ‘사랑코스’·25km ‘행복코스’ 달려

개성 만점 튜닝 자전거·색색의 슈트... 남녀노소 가을색 물씬

원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11월의 첫 휴 일인 5일. 201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green) 자전거 축제가 광주 서구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광장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시자전거연맹,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가족, 친구, 연인 등 500여명이 참가해 역사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른 아침 강변에 모여든 500여명의 라이더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튜닝한 자전거와 색색의 슈트를 차려입고 행사장을 찾아 ‘자전거 패션쇼’를 연출했다.

비경쟁 부문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에서 출발해 서창교-승촌보 나주대교-영산대교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45km 거리의 ‘사랑코스’와 승촌보 안내센터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25km의 ‘행복코스’로 열렸다.

행복코스의 경우 주행 거리가 짧고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과 라이딩 경험이 적은 동호인들이 참가가 많은 것을 감안,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장이 선두에 서서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참가자들은 문 본부장의 인솔아래 강변으로

뻗어난 길을 달리며 영산강의 가을풍경을 만끽했다.

특히 차량과 자전거 도로가 교차했던 남구 화장동 시산마을 앞 구간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더욱 안전한 행사가 됐다.

아내와 함께 행복코스를 완주한 박혜성(33·치평동)씨는 “느긋하게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아내와 이야기도 나누며 달렸다. 힘들다기보다 오히려 재미있어서 완주까지 하게 됐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평소 승촌보 구간을 자주 다닌다는 이옥희(61·문흥동)씨도 “지난해에 참가하지 못해 대회 공지가 뜨자마자 참가신청했다”며 “동호인들을 위한 대회이다 보니 나이가 많아도 손쉽게 참가할 수 있어 좋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매년 참가하고 싶다”며 그린자전거축제를 호평했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대회도 출발지인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에서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일보 주최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그린자전거축제’는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경쟁’보다는 ‘화합과 안전’의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또 동호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어 광주와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자전거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7 그린자전거축제에 참가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줄로 길게 늘어서 승촌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족끼리 친구끼리...함께 달리니 더 신나요



‘2017그린 자전거축제 대행진’ 행사장을 찾은 김건우(우리중 2) 등 중학생 6명이 출발 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백순길씨 부부가 손자들을 트레일러에 태우고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윤지(하남중앙초 2)양과 가족들이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자전거 통학하는 한 동네 중학생들 의기투합

201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green) 자전거 축제장에는 성인 동호인 뿐만 아니라 중학생 라이더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건우(우리중 2), 박종운(우리중 2), 조완(우리중 3), 문성천(우리중 1), 안진영(광주중 1), 최은범(우리중 1) 이들 6명의 라이더는 같은 동네에서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친구사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했다는 이들은 평소에도 틈날때마다 서창교를 출발해 승촌보까지 왕복하는 등 체력과 우정을 함께 키워오고 있다.

이날의 참가도 우연히 거리에 붙은 그린 자전거축제 홍보 플래카드를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나가보자’며 의기투합해

만들어진 결과다.

행복코스(25km)에 참가하는 이들은 출발 전부터 서로의 자전거에 배면표를 달아 주거나 헬멧이나 장갑 등의 장구들을 챙기며 서로의 준비상태를 살뜰히 점검한다.

김건우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자주 본 친구들이라 서로의 실력을 잘 안다”며 “빨리 달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의 페이스를 살피며 안전하게 달리겠다”고 말했다.

최은범 학생도 “공부 때문에 운동시간이 부족해 시작한 자전거인데 친구들과 함께하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키우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과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생후 8개월 손자와 특별한 추억

그린(green) 자전거 축제의 ‘최연소 참가자’는 생후 8개월의 귀여운 남자아이였다.

출발에 앞서 몸을 풀고 있던 중년 부부 뒤로 보이는 자전거 트레일러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다. 트레일러에는 8개월 된 남자아이와 3살 된 누나가 나란히 누워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순길(59)씨와 정강영(54·여)씨는 두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치평동에서 국수 가게를 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는 부부는 평소 쌓은 자전거 실력을 발휘해 가족 나들이에 나섰다.

10년 경력의 백씨는 아내의 스승이다. 백씨는 “수영도 오래 했고, 탁구도 수준급으로 치는데 자전거만 한 운동이 없는 것

같다. 창원에서 동호회를 했는데 나중에 아내도 가입해서 내가 자전거를 알려줬다(웃음). 몇 년 전에는 돌이 14박15일로 전국 일주를 하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경치가 좋은 곳이면 머물기도 하는 등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남편 혼자 좋은 곳에 다니는 것 같아서 나도 자전거를 시작했다(웃음). 시간이 날 때 마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건강에도 좋고 남편과 같이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자전거 예찬론을 펼친 두 부부는 출발 소리에 맞춰 앞으로 나란히 달리며 손자들과 특별한 가을 추억을 더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지네 네 가족’ 자전거 묘미에 푹~

“엄마·아빠와 함께하니가 더 재미있어요.”

그린(green) 자전거 축제는 실력 발휘의 무대이자 가족 화합의 장이었다. 화려한 슈트와 장비로 무장을 한 ‘실력파’ 동호인들 사이에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자전거의 묘미에 빠진 ‘윤지네 가족’도 그 중 하나였다.

하남중앙초 2학년인 김윤지 양은 엄마 안송주(38)씨와 차를 타고 행사장을 찾았다. 가장 먼저 자전거를 시작한 오빠 김운재 군(초 6년)은 아빠 김재현(43)씨와 페달을 밟으며 일곡동에서 달려왔다.

자전거길을 달리면서도 아빠와 아들들 속도가 느린 엄마와 딸을 기다리느라 잠시 멈추기도 했다. 달리는 속도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다.

윤지양과 윤재군은 “자전거를 타다 보면 살짝 힘들 때도 있지만 재미있다. 며칠 전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비가 와서 대피하기도 했는데 가족과 함께해서 좋다”고 웃었다.

엄마 안씨는 “조금씩 타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 등산도 했었는데 자전거는 쉽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빠 김씨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아들들을 먼저 시켰다. 운동도 하고 아들과 함께하려고 시작했는데 하체 운동도 되고 자세도 교정된다. 대회는 처음이다”며 처음 출발선에 선 소감을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